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1.10.(수) 조간	배포	2024.1.9.(화)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국 장	서영일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이권홍 (02-3145-7450)

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

주요 내용

- **(점검배경)**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,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
 - **全 보험회사**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.
- **(점검결과)**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
 -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.

〈 주요 점검결과 〉

- ① **(유동성프리미엄)** 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
- ② **(업무원가)**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
- ③ **(기타)**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금리산정방식 불합리

- **(향후계획)**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.
 - 한편,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정해져 있어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고정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('23.12.20.)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 -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.

I. 점검 배경

-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
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로
 -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
서민들의 대표적인 ‘소액·생계형’ 자금조달 수단입니다.
- *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백만개, 계좌 평균잔액은 4.8백만원(23.9월말)
- 한편, 그간 감독당국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노력*
에도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,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
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**이 있어
 - * (10.3월)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산정 방식 일원화, (15.3월) 대출금리 모범기준 시행 등
 - ** 보험계약대출 관련 객관적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
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 산정 등
- 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
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.

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

-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
 - **(기준금리)**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* 적용
 - * 금리확정형(예정이율), 금리연동형(공시이율)
 - **(가산금리)** 유동성프리미엄(예비유동성 기회비용), 업무원가*, 법적
비용**,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
 - *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·물건비 등 ** 교육세 등

<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(예시)>



II. 점검 결과

-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**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***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

*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**예비 유동성** 보유, 측정가능한 위험 인수의 **객관적 입증**시, **업무원가**, **법적비용** 및 **목표이익**을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 가능

-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.

< 주요 점검결과 >

① 유동성프리미엄	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
② 업무원가	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
③ 기타	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 산정 등

1

유동성프리미엄 :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

-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*과 관련이 없음에도

*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금리차에 따른 기회비용

- 생보 9개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.

【참고 : 유동성프리미엄】

-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자산 보유에 따른 ①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조달부채와 대출간 금리차인 ②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으로 구성되나
-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(해약환급금 부리이율)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므로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

2

업무원가

가.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 포함(생보 3개사, 손보 1개사)

- ☐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하여 산정하고 있었습니다.

나. 업무원가 배분대상 및 방식 불합리(생보 3개사, 손보 1개사)

- ☐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(상품개발 등)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
 -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(금리확정형, 금리연동형)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.

3

기 타

가. 목표이익률 산정방식 불합리(생보 6개사, 손보 4개사)

- ☐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(업무원가 등)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하였습니다.

나.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 적용

- ☐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*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(예: 2.0%)로 기재되어 있어

* 사업방법서 : "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「예정이율+2.0%」"로 기재 등

-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 의무*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.

* (보험업법 §127조의3) "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"

Ⅲ. 향후 계획

①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지도

-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,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.

②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 개선

-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
- 비조치의견서 발급(‘23.12.20.)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,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.

【참고 :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비조치의견서(‘23.12.20.)】

-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아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,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(보험업법 제127조의3) 위반 소지가 있어
 - 보험회사가 제재 위험없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(‘23.12.20.)하였습니다.

③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

-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.